

코로나19,

**전남지역 노동환경에 미친 영향 검토 및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16:00
-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2층(교육실)



전남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

시간	내 용	비 고
4:00~4:05	개회 및 내외빈 소개	사회 : 전경진(전남노동권익센터 동부사무소 노동법률팀장)
4:05~4:20	[인사말씀]	1.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2.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 3. 순천시의회 윤영규 의원 4.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
4:20~4:35	코로나19 노동환경실태조사 발표 코로나19 지역경제 통계 방향	문보현(전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4:35~5:05	코로나19로 인한 업 · 직종별 영향 사례발표	1.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시오엠테크분회 전진복 노안부장 2. 공공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 최상영 지회장 3.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이준상 조직부장 4. 민주연합노조 여수지부 조현미 조직부장
5:05~5:30	자유토론	
5:30	기념사진	

코로나19와 전남지역 취약 계층노동자의 향후 전망

코로나19, 노동환경실태조사결과 요점

- 코로나19 장기화, 확산(유행)으로 인한 전남도내 노동환경 변화 실태조사를 5.8~14까지 시행, 조사대상 업종으로 대면접촉기회가 많은 서비스업(학원, 보건, 사회복지, 영업 등), 운수업(택시, 관광버스 등),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등 5개 업종과 기타로 분류.
- 코로나19발생 이전의 월 평균임금과 가구 소득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 응답자의 44%가 소득감소로 경제적 압박상태.
- 코로나19의 경제충격 장기화의 영향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기간제, 특수고용, 일용직, 파견용역직 등), 저소득층일수록 더 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종에 특별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 대구 등의 예에 따른 전남도지원이 바람직.
- 올해 1분기 전남경제동향은 건설수주 감소를 비롯하여, 토목(기계, 항만 등)공사가 크게 줄었고, 서비스업 동향은 서비스업 생산이 작년에 비해 감소함.

1. 조사결과에 관하여

□ 코로나19사태 확산과 장기화는 노동환경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세계적으로 제조업생산력 저하, 수출부진 등으로 산업전

반에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체적 효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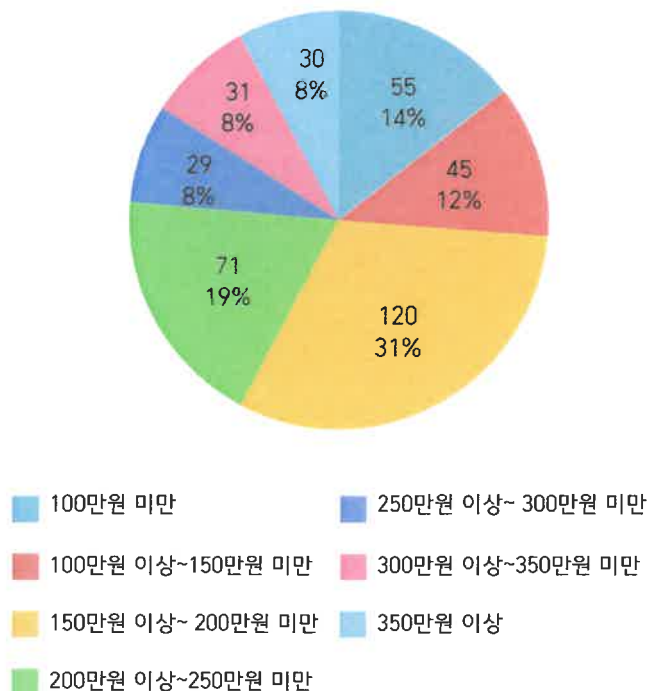
- 업종 구별 없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취약계층은 노동시간 단축, 가구 소득 감소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구소득 감소)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응답자의 44%가 임금감소(이 중 30~50%감소 27%, 10~30%감소 17%), 가구 소득 또한 4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이 중 30~50%감소가 29%, 10~30%감소 19%).

- 전체응답자 중 정규직군과 비정규직군 비율이 약 절반씩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군의 소득감소가 큰 것으로 보임.

(단위 : 명/%)

구 분	응답자수	비율	비 고
100만원 미만	55	14	-
100만 원 이상 150만원 미만	45	12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	31	-
200만 원 이상 250만원 미만	71	19	-
25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	29	8	-
300만 원 이상 350만원 미만	31	8	-
350만 원 이상	30	8	-
계	381	100	-



코로나19 사태 이전 월평균 임금

-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받았던 월평균 임금액은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31%를,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 19%, 100만 원 미만 14%,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 12%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과 350만 원 이상도 각각 8%를 차지함.
- 250만 원 미만이 전체응답자의 76%를 차지, 전남도 5인 미만사업 상용 월 평균급여 323만 원(3,235천원)과 70만 원 이상 적으며,
- 1인 이상 사업장 전체 노동자의 2019년 월 임금총액(정액+초과급여+연간특별급여/12개월의 합)이 314만 원(3,138천원)보다 전체응답자의 급여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정규직 3,612천원, 비정규직 1,643천원, 기간제 2,440천원, 파견·용역 2,027천원 일
용 1,569천원(고용노동통계조사,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시간 향 참조)

http://laborstat.moel.go.kr/hmp/tblInfo/TblInfoList.do?menuId=0010001100101104&leftMenuId=0010001100101104&wCdVal=MT_ZTITLE&upListVal=118_159

□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 비정규직, 노동시간 단축과 휴가사용 권
유, 휴업, 감원 등 잉여인력 정리 우선 대상, 코로나19 방역(예방)도구도 지급
치 않는 곳도 31%

- 정규직군(무기 계약직인 중규직 포함)과 같이 고용이 안정된 경우는 노동시간단축과 휴가사용에 대해서 코로나19사태 발생이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화 없음(전체 응답자의 65%).
- 다만, 코로나19 경제충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게 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회사 내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
- 비정규직의 경우는 노동시간단축(전체응답자의 27%)과 휴가사용[전체응답자의 29% (휴업포함 36%), 이중 55%가 회사의 권유로 사용함]
- 코로나19 여파로 일감부족상태에 놓인 기업이나 사업장은 일용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등 비정규직군에 대해 노동시간단축, 휴가 등을 먼저 적용하므로 이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짐.

□ 제언(고용유지, 소득보장을 위한 틀 고안)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소득과 가구 소득의 감소에 대한 보전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대량 실업방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책이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으로 고안되어야 함(가구 소득감소보전 방안으로는 세대주기준에서 개인별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액기준을 완화, 현실적인 소득보전(생계급여수준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함.

※ 한편으로 소상공인과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도 함께 확대되어야함

- 특수고용·프리랜서 업종에 종사, 현행 제도상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7월말 전남도, 문화예술인지원 1인당 50만원 2020년 연말까지로 하는 계획발표

※ 국가적 차원에서는 실업부조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보험방식→조세방식)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돼야 함.

- 코로나19 사태 영향은 2020년 1분기 전남 도내 서비스업동향조사 결과에서 나타나 듯 택시, 관광버스 등의 운송, 예술·스포츠·여가(관광업계 등), 숙박·음식, 교육(학원 등)등의 서비스업종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유지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세계적인 코로나19사태는 리쇼어링(외국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의 가능성이 예상됨으로 전남지역으로의 유치를 위한 보조금지급, 세제혜택 등의 적극적 지원-국내복귀 중소기업의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지원, 코로나19이후 퇴직자 재고용, 외국인이주노동자를 국내 내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필요(일본 외국 생산거점의 국내 이전을 위해 2,200억 엔 추가예산 편성(2020.4.30)).

- 코로나 사피엔스(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신인류)출현에 따른 뉴노멀(코로나19 사태 이전은 오울드노멀)은 인간다운 모습을 한 경제, 부의 재편과 평등,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확충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 참고: '코로나19'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2020.5.15.)

-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환경 개선분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 6개 과제
- ②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분야: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등 9개 과제
- ③소비자 권익 보호분야: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 8개 과제
- ④ 근로자·특고 권리 강화분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공공공사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5개 과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977

2.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전남지역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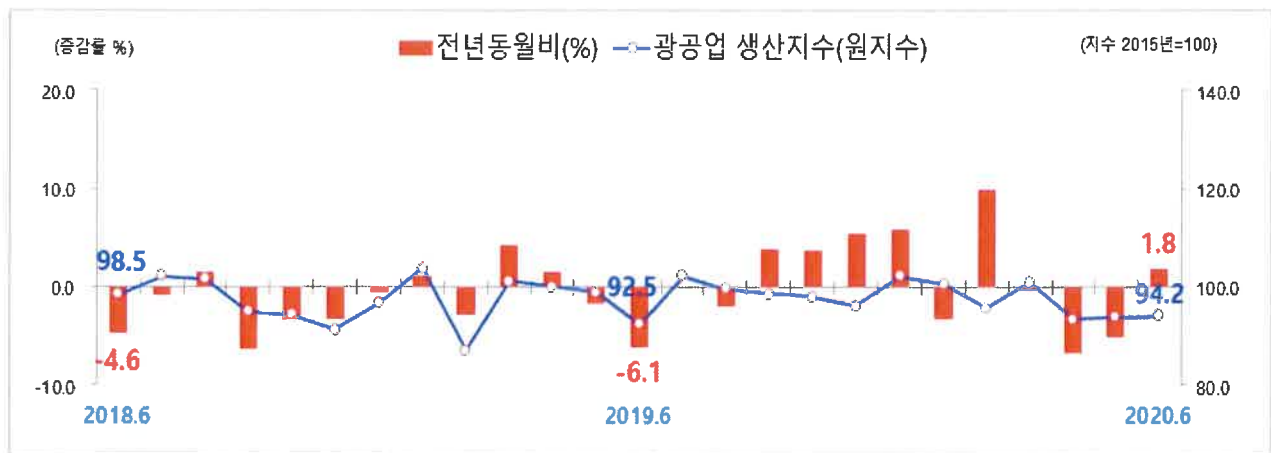
□ 지역경제동향 등에 관한 통계현황

- 통계청(2020년 6월 광주전남지역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남도내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1.8%증가(전월 대비2.4% 증가), 광공업출하는 전년동월대비11.0%증가(전월대비 4.0%증가),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3.9로 전년동월대비 0.2%감소
- 2020년 2분기 서비스업동향조사결과에서 전남도내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 대비 1.6%감소, 감소세는 전분기(-0.1%)보다 1.5%p확대. 운수,창고업(-17.4%), 예술, 스포츠 여가(-15.5%), 숙박, 음식점(-9.6%), 교육(-2.7%)등에서 생산 감소,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직결됨.

전남광공업 전년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석유정제	(17.0 %):경유, 나프타, 휘발유, 솔벤트, 부탄가스, 등유, 프로판가스, 아스팔트
기타운송장비	(15.2 %):유조선, 특수선박(비상업용)
화학제품	(2.0 %):이염화에틸렌, 폴리에틸렌,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MDI
1차금속	(-17.0 %):아연도강판, 냉연강판, 중후판, 열연강대, 칼라강판, 경강선, 조강
비금속광물	(-0.9 %):석고판제품, 시멘트, 인조대리석, 비내화모르타르, 생석회, 시멘트클링커
섬유제품	(-11.3 %):천연섬유사

전남광공업생산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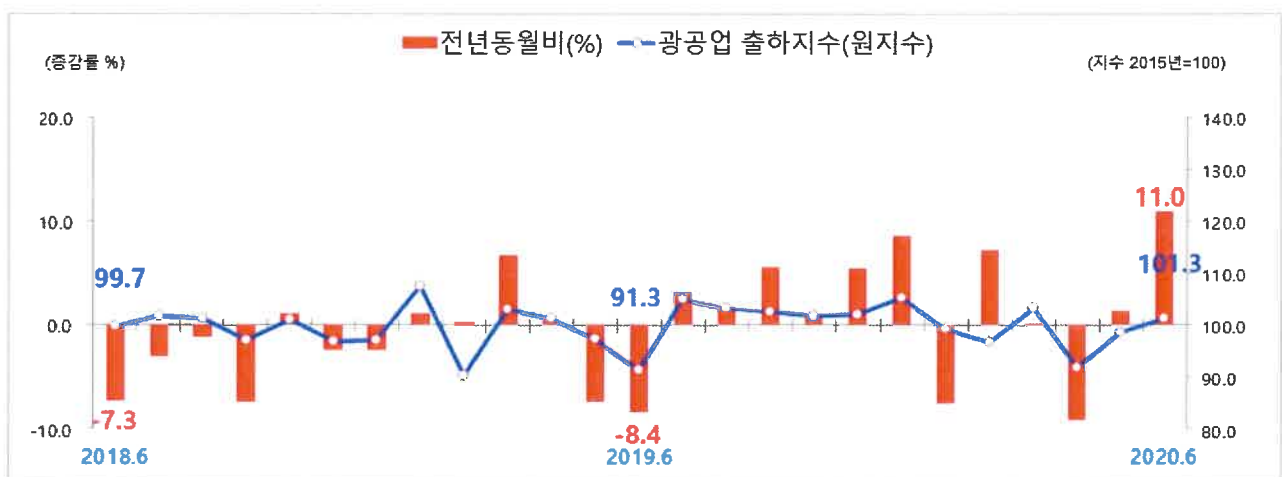


자료: 2020년6월 광주전남지역산업활동[보도자료]

전남광공업 전년동월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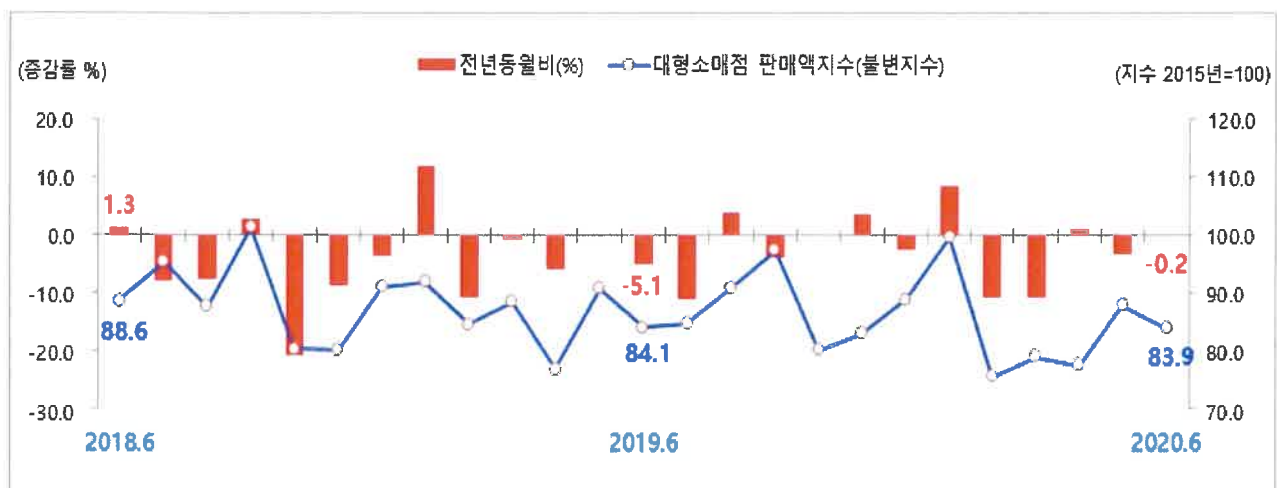
석유정제	(27.9%): 경유, 석탄코크스, 휘발유, 나프타, 등유, 프로판가스, 아스팔트
화학제품	(10.2%):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스티렌모노머,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기타운송장비	(11.8%): 유조선, 특수선박(비상업용)
1차금속	(-8.1 %):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중후판, 경강선, 선철
비금속광물	(-6.2 %): 부정형내화물, 콘크리트파일및전주, 생석회, 시멘트
전기가스업	(-0.7 %): 증기온수업

전남광공업출하추이



자료: 2020년6월 광주전남지역산업활동[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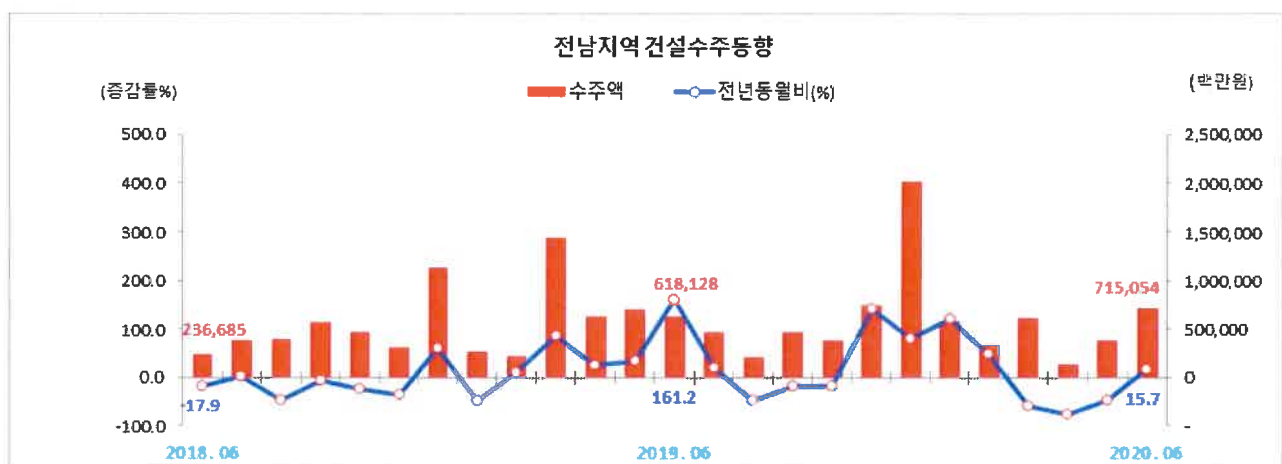
전남대형소매점 판매추이(0.2%감소)



□ 상품군별 주요 증감 내역(전년동월비)

- 증가: 가전제품(72.0%), 오락,취미, 경기용품(3.6%), 기타 상품(2.0%)
- 감소: 신발,가방(-13.6%), 화장품(-11.5%), 의복(-5.4%), 음료료품(-5.2%)

□ 전남 건설수주액은 7,15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15.7% 증가



전남 서비스생산 주요 증감업종

- 증가: 금융·보험(12.1%), 보건·사회복지(3.2%), 수도·하수·폐기물처리(15.6%) 등
- 감소: 운수·창고(-17.4%), 숙박·음식점(-9.6%), 교육(-2.7%), 예술·스포츠·여가(-15.5%) 수도·하수·폐기물처리(-9.1%),

(2015=100, 불변, %, %p)

	가중치	'19.2/4	3/4	4/4	'20.1/4	2/4 ^P	기여도
총 지 수	1000.0	107.3	108.6	110.7	103.9	105.6	-
전년동기비	-	1.1	2.1	2.0	-0.1	-1.6	-
- 도소매	182.5	-1.6	-1.7	-1.3	0.7	1.8	0.31
- 운수·창고	110.3	0.5	3.6	1.7	-11.5	-17.2	-1.95
- 숙박·음식점	75.6	0.7	0.7	2.4	-7.2	-9.6	-0.72
- 정보통신	46.4	-2.8	0.2	-2.5	1.3	3.0	0.14
- 금융·보험	80.5	0.2	3.3	5.5	8.4	12.1	1.09
- 부동산	18.2	5.7	9.1	3.0	15.1	15.6	0.33
- 전문·과학·기술	36.0	4.7	3.0	1.4	6.7	2.7	0.09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48.8	5.4	1.9	3.0	1.7	-2.3	-0.10
- 교육	155.2	-2.1	-1.2	-1.5	-1.6	-2.7	-0.38
- 보건·사회복지	150.0	6.4	5.8	5.3	3.2	3.2	0.53
- 예술·스포츠·여가	28.6	0.5	-0.8	2.6	-8.6	-15.5	-0.49
- 협회·수리·개인	40.3	-0.3	3.4	2.0	-7.0	-5.1	-0.20
- 수도·하수·폐기물처리	27.9	7.5	8.6	15.6	12.4	-9.1	-0.28

자료: 통계청 2020년 2분기 시도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보도자료]

1 고 용

□ 2020년 7월 고용행정통계 특징¹⁾

- 2020년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90만 8천명, 전년동월대비 18만 5천명 증가, 5월을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 가입자수(천명): ('20.3)13,757→(4)13,775→(5)13,821→(6)13,871→(7)13,908

※ 가입자수 증감(천명): ('20.3)253→(4)163→(5)155→(6)184→(7)185

- 가입자 수 관련, 상용직과 임시직만 발표(미가입자, 일용노동자, 자영업자 제외)

1) 고용노동부(2020.8.11.)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7월 노동시장동향]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59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고용노동부 '20.7월 노동시장동향. 2020.8.11.(보도자료)

-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 중심 증가폭 개선, 다만, 도소매, 숙박음식, 육상 운송 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²⁾

주요 산업(서비스) 고용보험가입자 증감추이(2020년1~7월)

(단위: 천명)

구 분	'20.1월	'20.2월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0.7월
교육서비스업	43	43	18	5	3	18	38
보건복지업	126	125	108	49	100	108	109
도소매업	35	33	23	14	8	7	6
숙박음식업	60	54	26	2	-3	-2	-2
사업서비스업	-7	-10	-13.1	-20.3	-21.7	-10.7	-8.4

자료: 고용노동부 '20.5~7월 각 노동시장동향에서 발췌 편집

- 제조업은 작년 9월 이후 추세적 둔화 흐름 지속, 전자통신, 자동차부품산업, 기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 교육서비스업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해당업종 동향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며, 초중학교 방과후 교사, 특기적성교사 등을 포함. 보건복지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개인병원 등. 숙박음식업은 호텔, 음식점업 등, 사업서비스업은 인력공급, 여행, 전시 등.

		'18.7월	'19.7월	'20.3월	'20.4월	'20.5월	'20.6월	'20.7월
취득자		617	649	690	560	486	520	612
(증감)		18	32	-108	-121	-90	-5	-37
(증감률)		(2.9)	(5.2)	(-13.5)	(-17.8)	(-15.7)	(-1.0)	(-5.7)
신규	신규취득자	85	92	92	67	58	64	80
	(증감)	-2	7	-21	-22	-14	-2	-12
	(증감률)	(-2.8)	(8.5)	(-18.3)	(-24.4)	(-19.4)	(-2.7)	(-13.5)
경력	경력취득자	533	557	598	494	428	456	533
	(증감)	20	25	-87	-100	-76	-4	-25
	(증감률)	(3.9)	(4.6)	(-12.7)	(-16.8)	(-15.1)	(-0.8)	(-4.5)
상실자		596	613	726	529	434	462	570
(증감)		19	17	24	-25	-79	-41	-42
(증감률)		(3.4)	(2.8)	(3.4)	(-4.5)	(-15.5)	(-8.1)	(-6.9)

자료: 고용노동부 '20.7월 노동시장동향

- 2020.7월 고용보험 상실자 수(-42천명, -6.9%)보다 취득자 수(-37천명, -5.7%)가 감소,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및 연기, 휴업·휴직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남성가입자는 78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증가, 여성 가입자는 60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7천명 증가
 - ※남성 가입자수 증감(천명): ('20.3)91→(4)60→(5)50→(6)52→(7)48
 - ※여성 가입자수 증감(천명): ('20.3)161→(4)104→(5)105→(6)132→(7)137
- 또한, 연령별로 보면,
 - ※ 60세 이상은 보건복지(+57천명), 제조업(+21천명), 사업서비스(+16천명) 등에서 주로 증가
 - ※ 29세 이하는 제조업(-41천명), 사업서비스(-18천명), 도소매(-12천명)에서 주로 감소
- 2020.7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잠정치로 114.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5천명 증가, 수혜자는 731천명, 지급건수 833천 건 등임.

□ 전남 고용현황(2020년 7월)³⁾

3) 통계청(통계포털)자료 및 광주전남연구원'월간 광주전남 경제동향 2020년 7월호',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코로나19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코로나19 이후 광주전남 수출동향 및 시사점(2020.7.22.자 보도자료)등 참조하여 작성함.

- 5월 기준 전남 지역 경제활동 인구수(1,010천명)는 전년동월대비 4천 명 감소, 취업자 수(981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5천 명 증가,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3.0%)대비 0.1%p 감소.

※남성 취업자수 증감: ('20.5)552천명, 전년동월대비(+7천명)증가

※여성 취업자수 증감: ('20.5)430천명, 전년동월대비(-1천명)감소

- 농림어업(+14천명), 제조업(+2천명), 건설업(+22천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천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천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남지역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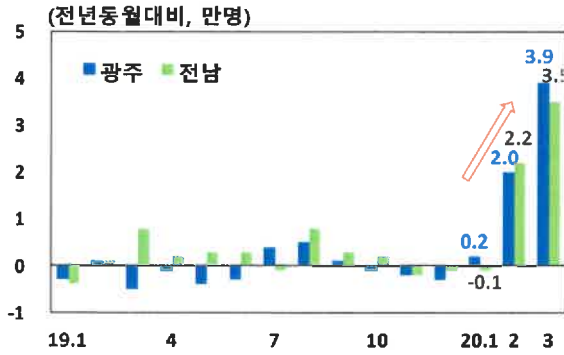
(천명, %, 전년동기대비증감)

		전 국				전 남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수	실업자 수	실업률
연도	2017	27,748 (329)	26,725 (316)	1,023 (14)	3.7	988 (-6)	957 (-8)	31 (2)	3.2
	2018	27,895 (148)	26,822 (97)	1,073 (50)	3.8	989 (0)	961 (4)	28 (-4)	2.8
	2019	28,186 (291)	27,123 (301)	1,064 (-10)	3.8	999 (11)	974 (13)	26 (-2)	2.6
분기	2019	3/4 28,328 (248)	27,382 (367)	946 (-119)	3.3	1,005 (14)	981 (14)	24 (0)	2.4
		4/4 28,283 (370)	27,393 (422)	891 (-51)	3.2	1,005 (12)	989 (11)	17 (0)	1.6
	2020	1/4 27,911 (209)	26,749 (288)	1,162 (-79)	4.1	992 (13)	961 (9)	31 (3)	3.1
월	2020	3 27,789 (-213)	26,609 (-196)	1,180 (-17)	4.2	985 (-11)	960 (-7)	25 (-5)	2.6
		4 27,734 (-550)	26,562 (-476)	1,172 (-73)	4.2	985 (-16)	960 (-8)	25 (-8)	2.5
		5 28,209 (-259)	26,930 (-392)	1,278 (133)	4.5	1,010 (4)	981 (5)	29 (-2)	2.9

자료: 연도별, 분기별 자료는 기간 평균기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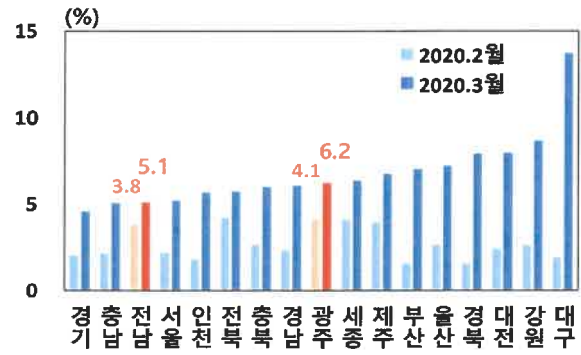
- 전남지역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부터 감소(-7천명, 전년동월대비)하였으며, 휴업·휴직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 중단 등으로 일시휴직자 규모(3월 +35천명) 및 비중(5.1%)이 급증하면서 향후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 있음.

일시휴직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시도별 취업자수 대비 일시휴직자수 비중



자료: 통계청

2 제조업

부 문	내 용
■ 석유정제·화학	제품 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및 정제마진 악화
■ 철강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 급감, 제품 판매가격 하락
■ 조선	수주물량 양호, 세계 교역량 감소 시 신규 수주량 둔화
■ 자동차	글로벌 수요 위축, 국내외 부품 공급망 차질

※ 자동차항목은 생략함.

전남지역 주요 품목별 수출¹⁾

(억달러, %)

	2019년		2020년		C-A	D-B
	1Q(A)	4~5월(B)	1Q(C)	4~5월(D)		
석 유 화 학	34.8	25.0	31.4	16.9	-3.4 (-9.8)	-8.1 (-32.3)
석 유 제 품	25.6	17.1	22.9	7.3	-2.7 (-10.6)	-9.8 (-57.3)
철 강	11.0	7.0	8.7	3.6	-2.3 (-21.0)	-3.4 (-48.0)
조 선	7.7	4.8	6.3	2.6	-1.4 (-18.6)	-2.2 (-45.4)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석유화학과 정제

1) 석유화학

- 전남지역 석유화학 산업은 자동차·가전 등 전방산업의 수요부진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석유화학공장의 정상 가동에 따른 공급과잉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수출단가가 하락,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감소됨*

* 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 : 2019.4Q +11.6% → 2020.1~2월 +2.8%

수출(전년동기대비) : 2020.1~2월 -10.5% → 3월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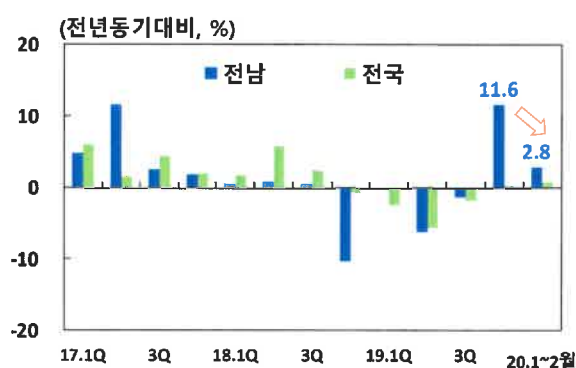
- 석유제품은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나프타(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서 스프레드*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주요 수요처인 중국의 공장가동률이 하락하고 수출단가도 낮아지면서*** 지역 석유화학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감소됨.

* 스프레드란 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재료 가격을 차감한 것을 의미

** 에틸렌나프타 스프레드(달러/톤) : 2019.11월 238 → 12월 170 → 2020.1월 260 → 2월 260 → 3월 323

*** 2020.1/4분기중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2% 감소

전남지역 석유화학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 석유화학제품의 지역별 수출액¹⁾²⁾

(억달러, %)

	2019년	2020년	
		1~2월	3월
전 체	127.4 (-13.0)	19.2 (-10.5)	10.2 (-5.4)
아시아	86.9 (-11.0)	13.0 (-9.8)	6.5 (-12.1)
(중 국)	47.3 (-1.7)	6.3 (-14.7)	3.2 (-19.2)
(동남아)	24.5 (-17.7)	3.9 (-2.1)	2.0 (-6.9)
북 미	7.8 (-13.8)	1.2 (-2.8)	0.7 (22.9)
유럽	20.0 (-16.9)	3.2 (-11.4)	1.8 (-3.0)
중남미	6.2 (-15.7)	0.8 (-24.6)	0.5 (12.1)

주: 1) MTI 2단위 21(석유화학제품) 기준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 석유정제

- 전남지역 석유정제 산업은 중국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정제마진 축소 등으로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 및 수출이 감소됨*

* 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 : 2019.4Q -1.1% → 2020.1~2월 -2.5%
수출(전년동기대비) : 2020.1~2월 +3.6% → 3월 -24.0%

- 또한 최근 산유국 간 원유 감산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역 정유업체는 수출단가 하락*, 정제마진 악화 및 재고평가 손실 등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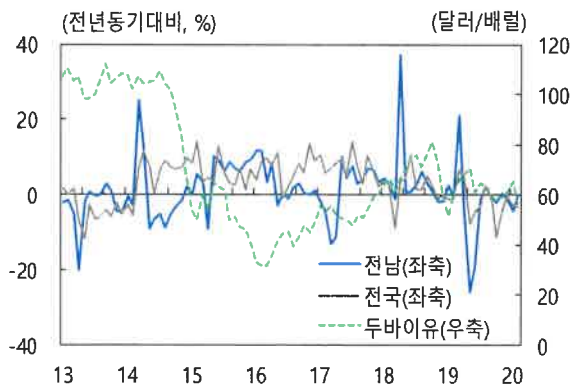
* 2020.1/4분기중 석유제품의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6.7% 감소

- 2014~2016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업황이 회복되었으나,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운항의 중단·축소와 여행·외출 자제 등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업황이 부진함.

*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2019.11월 4.9% → 12월 2.7% → 2020.1월 -5.2% → 2 - -2.1%

-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아시아 지역에 확산이 지속될 경우 석유제품 수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전남지역 석유정제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블룸버그

전남지역 석유제품의 지역별 수출액

(억달러, %)

	2019년	2020년	
		1~2월	3월
전 체	110.2 (-13.7)	16.9 (3.6)	7.1 (-24.0)
아시아	80.3 (-21.3)	13.1 (24.1)	4.9 (-34.6)
(동남아)	43.6 (-26.4)	6.8 (32.9)	2.3 (-50.8)
(중 국)	29.2 (-12.2)	5.0 (23.1)	2.0 (-7.9)
북 미	12.3 (51.8)	0.9 (-67.4)	0.6 (-37.6)
오세아니아	6.5 (-38.5)	1.4 (0.3)	0.3 (-11.2)
중남미	2.2 (84.3)	0.1 (-58.0)	0.0 (-88.6)

주: 1) MTI 3단위 133(석유제품) 기준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철강

- 전남지역 철강산업은 중국 철강업체들의 공급확대로 글로벌 철강단가 하락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자동차·건설 등 전방산업의 생산차

질로 수요와 수출이 모두 감소됨.*

* 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 : 2019.4Q +4.0% → 2020.1~2월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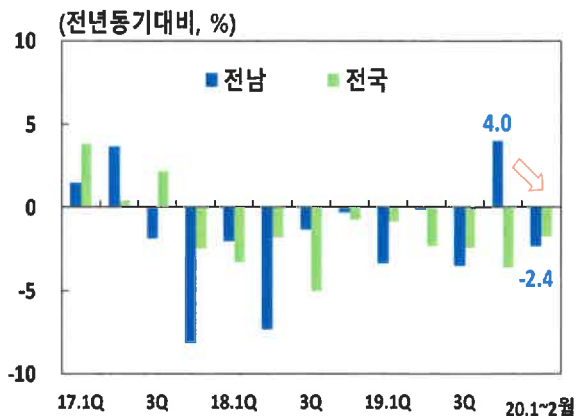
수출(전년동기대비) : 2020.1~2월 -23.5% → 3월 -15.3%

-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 및 판매가 부진하면서 수요가 감소한 데다, 자동차·건설 등의 조업 중단*·지연에 따른 철강재고 증가로 판매가격이 하락**

* 2020.3월중 벤츠, 폭스바겐, BMW, 포드 등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조업을 중단

** 2020.1/4분기중 철강제품의 수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4.4% 감소

전남지역 철강 생산지수



자료: 통계청

전남지역 철강제품의 지역별 수출액¹⁾²⁾

(억달러, %)

	2019년	2020년	
		1~2월	3월
전 체	40.8 (2.3)	5.8 (-23.5)	2.9 (-15.3)
아시아	32.4 (5.0)	4.8 (-19.4)	2.2 (-13.5)
(일본)	11.2 (7.6)	1.4 (-34.7)	0.8 (-13.6)
(중국)	8.4 (-8.0)	1.6 (37.6)	0.7 (16.1)
(동남아)	8.1 (16.8)	1.2 (-21.7)	0.6 (-14.1)
북 미	1.4 (13.6)	0.1 (-61.8)	0.1 (-29.7)
유 럽	2.3 (-5.9)	0.3 (-34.1)	0.2 (-42.7)
중남미	4.3 (-7.5)	0.5 (-38.9)	0.3 (-14.9)

주: 1) MTI 2단위 61(철강) 기준

2)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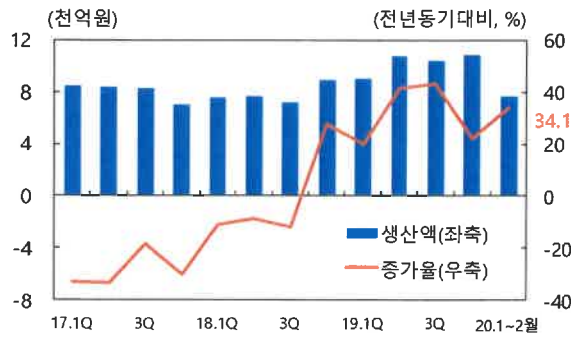
□ 조선업

- 전남지역 조선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부품업체의 납품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선주들이 선박 인도 혹은 분할금 납부 연기를 요청한데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규수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출이 감소됨.

* 2020년 1~5월 중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 신규 수주량은 151천CGT로 전년동기(568천CGT)대비 73.5%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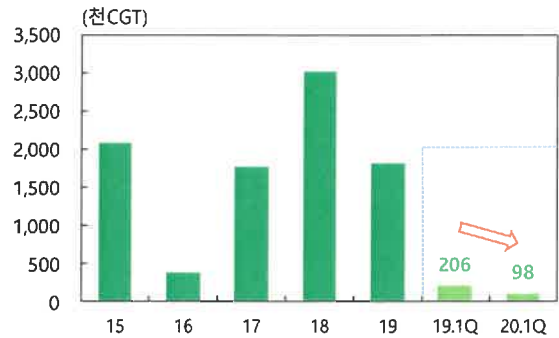
- 또한, 현재 수주잔량 양호(선박건조기간 통상 2년 이상 소요)상태이나, 2020년 수주가 없어 장기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



자료: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전남지역 주요 조선업체 신규 수주물량



자료: Clarksons

3 서비스업

부 문	내 용
■ 도소매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 온라인 매장 매출은 증가
■ 음식·숙박·관광	사회적 거리두기, 각종 행사 취소·연기 등으로 업황 부진
■ 운수	관광객 감소 등으로 업황 부진
■ 문화·공연	관람객 급감, 공연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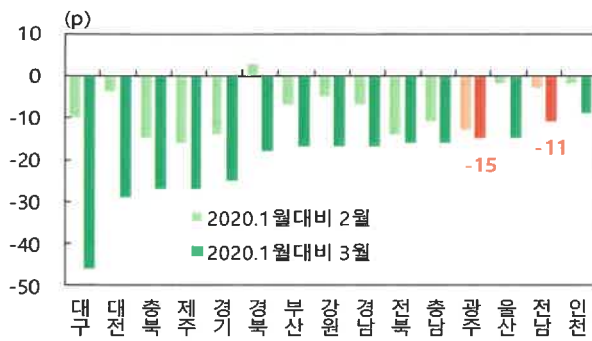
- 서비스업 대부분의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특히 문화·공연산업이 관람객 급감과 공연 취소 등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업황이 크게 부진함*

* 비제조업 업황BSI

▪ 전남 : 2020.1월 68 → 2월 65 → 3월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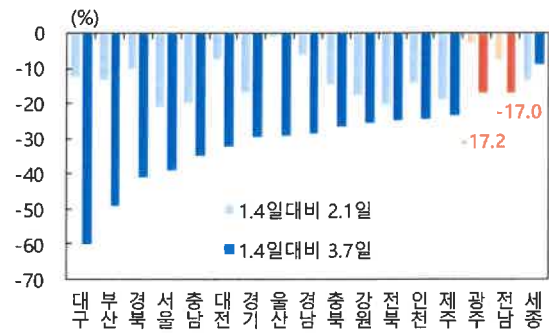
- 다만 전남지역은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비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감소폭이 -11p,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 감소율 -17% 등 충격의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비제조업 업황BSI 증감



자료: 한국은행

시도별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 증감률



자료 : (주)로플렛

□ 도소매업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매장 방문 기피로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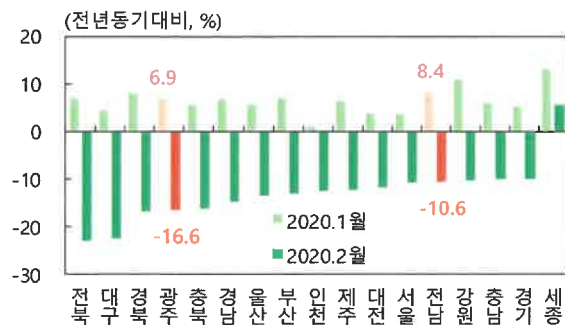
* 2020.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전년동기대비): 전남 -10.6%

- 반면 온라인 매장의 경우 명품, 가전제품, 음식료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배송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소비*가 증가되는 추이.**

* 신한카드와 하나카드의 청구지 기준 신용카드 사용금액임

** 2020.2월 온라인 매장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광주 +51.4%, 전남 +68.4%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자료: 통계청

시도별 온라인 매장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



자료: 신한카드, 하나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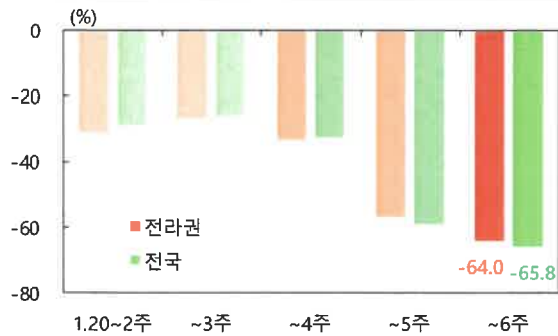
□ 음식·숙박·관광업

- 음식·숙박·관광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외활동 위축, 각종 행사 등이 취소·연기되면서 업황이 부진함.

- 다만 외식업체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경상권(일평균 -74%)에 비해서는 고객 감소율(전라권 일평균 -64%)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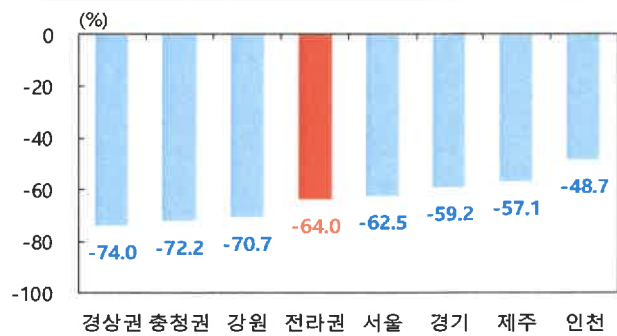
*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외식업계 코로나19 영향 모니터링 조사(2020.2.4~3.6일)' 결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객 수를 1주일 간격으로 총 5회 조사

코로나19 이후 외식업체의 누적 고객 감소율¹⁾



주: 1) 1.20일 이후 해당 기간 일평균 기준
자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지역별 외식업체의 누적 고객 감소율¹⁾



주: 1) 1.20일 이후 6주 간 일평균 기준
자료: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운수업(항공기의 경우- 지역 내 공항-무안국제, 여수공항) 여행객감소, 이에 따라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관광객 감소추이

※문화, 공연산업 또한 감소추이

4 농림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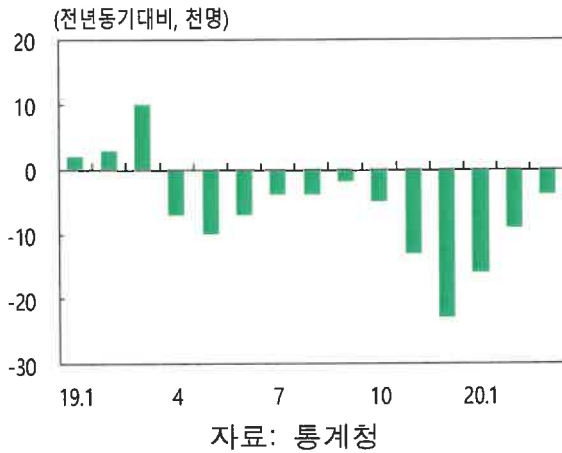
- 전남지역 농림어업은 인력수급의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 글로벌 수요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등으로 업황이 부진함.*

* 다만 2020.3월 수출은 미국으로의 김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

- 지역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다수가 본국으로 귀국, 반면 신규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식수요가 줄어들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농수산물 판매가 부진함.
- 향후 온라인 판매도 증가한 데다 정부·지자체의 지원 정책* 등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전남지역 농림어업 취업자수 증감



전남지역 농림수산물 지역별 수출액¹⁾

(백만달러, %)

	2019년	2020년	
		1~2월	3월
전 체	422.7 (8.6)	57.7 (-12.0)	46.5 (18.3)
아시아	322.4 (8.6)	39.7 (-20.6)	32.8 (6.3)
(중 국)	72.5 (37.6)	7.9 (-23.8)	8.5 (-2.0)
(동남아)	102.4 (4.9)	12.3 (-35.2)	9.6 (-2.8)
북 미	72.5 (1.3)	12.3 (1.9)	10.2 (58.3)
유 럽	16.8 (62.9)	3.9 (68.5)	1.8 (41.6)
중남미	2.7 (243.0)	0.3 (34.5)	0.6 (343.6)
중 동	3.1 (-42.8)	0.7 (156.9)	0.3 (-11.3)

주: 1)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